

# “꿈은 삶의 과정서 이뤄 가는 것... 목표를 세워야”

##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나의 길 나의 꿈’ 세미나

“꿈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갖게 한다”

지난 11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원우들은 “삶의 목표는 꿈을 꾸어야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미니언 리더들에게 듣는 세상사는 이야기-나의 길, 나의 꿈’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문화공간 DKB 이영민 대표와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장호순 소장, (주)AMG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대표(광주시 건축사 부회장)가 발표자로 나서 자신들의 삶 속 이야기를 담담하게 소개했다.

◇이영민 문화공방 DKB 대표=그는 항상 여행 속에서 또 다른 꿈을 찾았다고 했다. 연극인이자 기획사 대표를 맡아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고 있는 이 대표는 “연극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극단을 찾았던 인연으로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디뎠고, 30대 초반까지 연극을 해왔다. 그러던 중 13박14일의 유럽 여행을 떠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모스크바 슈우킨 대학과 바흐탄코프 극장, 체코 프라하,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을 돌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현지 공연들을 관람하던 중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

콘 아이스쇼를 국내로 초대해 전국 순회 공연을 벌였고, 이는 연극무대를 떠난 뒤 이 대표의 첫 기획공연 사업이 됐다. 이후 체코 프라하의 블랙라이트시어터 ‘뉘바디스’ 등을 국내로 초청해 10개 도시 순회 공연을 하면서 본격적인 공연기획 사업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연극인이란 직업을 버리지 않고 이 대표가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전히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면서 “여행은 또 다른 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장호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장=원래 꿈은 여성 장교였다. 하지만, 키가 작아 꿈을 접었다. 장 소장은 “꿈은 원하는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하지만, 꿈은 언제나 삶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여성장교의 꿈을 접었지만, 몇 가지 직업을 거쳐 현재는 경영학 박사가 됐다. 특별히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계기는 없었지만, 업무상 경영학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경영학에 매진했다. 뒤늦은 공부에 어렵기는 했지만 업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싶었고, 맡은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었다. 그 결과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는



이영민 문화공방 DKB 대표

전문가가 됐다. 그의 주 업무는 많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지원과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또한, 경영분석 및 민간위탁연구, 원가계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장 소장은 아직 남은 꿈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업무에 빠져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저만의 힐링 센터를 만들고 싶고, 많은 주변인들을 힐링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명철 (주)AMG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그는 ‘주경야독’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공교 건축과를



장호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장

나와 실습생으로 설계사무소에 근무했던 게 그의 인생을 바꿨다. 특별하게 큰 꿈이 없었던 정 대표는 설계사무소에서 연필로 종이 위에 건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건축설계가 너무 멋져 보였다. 그래서 작심했다. 뒤늦게 전남대학교 건축과를 다녔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 꿈을 이어갔다. 모두 야간대학을 다녔다. 낮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이론을 습득해 나갔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늦 공부야 무서웠다. 전남대 산업대학원을 진학해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전남대



정명철 (주)AMG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을 받으며 대학 강의도 짬짬이 하고 있다. 그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다닌 것 같지만,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건축설계가 아닌 건축 구조물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그는 “20여년 한 직업을 가졌어도 또 다르게 보였다”면서 “그것이 삶의 성장과정이고, 그러한 삶속에서 또다른 꿈을 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조우석 조아열처리 회장 ‘산업기술대상’ 대통령상

조우석(66) (주)조아 열처리 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1983년 금속열처리 전문업체인 조아열처리를 창업했으며 호남지역의 뿌리산업인 열처리 융합기술을 개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아열처리는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인 정밀금형 및 반도체금형 열처리기술개발(2002년)과 CU계 단결정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제조기술 및 응용제품개발(2004년), 클린디젤 중형 승용차 엔진용 고내마모성 밸브시트 제조기술 개발(2012년) 등 기술연구 개발에 앞장서 왔다. 또 금형산업 협동화 단지가 조성된 광주 평동산단에 신규투자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앞장서는 연구개발 진흥에도 기여했다.

조 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첨단 타타늄 나노 열처리 기술과 표면처리 기술을 융합하는 등 열처리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업기술대상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 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수여된다. 호·포·국과 함께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 및 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에버랜드 새 캐릭터 ‘레니와 라라’ 15일 공개

### 15일 생일 고객 무료 이용

에버랜드는 2015년 장미축제 30년과 2016년 개장 40년을 앞두고 새로운 대표 캐릭터 ‘레니와 라라’를 오는 15일 공개한다.

그동안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 동물원 사자를 관찰한 에버랜드는 국내외 캐릭터 전문가들과 함께 사자의 이목구비는 물론 신체비율, 관찰, 꼬리, 털까지 구체적으로 담았다. 에버랜드는 레니, 라라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보조 캐릭터들도 조만간 선보이며 캐릭터간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스토리를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레니와 라라는 15일 에버랜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고객들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피규어, 인형, 쿠션, 팝콘통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에버랜드 조병화 사업부장(전무)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귀여운 어린 사자의 특징을 캐릭터에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세부적인 묘사로 탄생한 레니와 라라를 통해 출판, 게임, 이모티콘, 웹툰 등 향



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11월 15일이 생일인 고객에게 에버랜드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이날부터 5일간 특별 제작한 ‘레니와 라라’ 캐릭터 배지를 매일 선착순 1만명씩, 총 5만명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무관심으로 인한 희생 없도록 방관자 되어서는 안됩니다”

### ‘세월호 단식’ 유민 아빠 김영오씨 광주 찾아

“제가 딸을 죽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유민이가 차가운 바다 속에 잠기기 전까지 저는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일요일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뉴스에 어떤 소식이 나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다.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46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 광주를 찾았다. ‘세월호 3년 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주최로 지난 12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릴레이 강연 시기에 앞서 광주시민을 만난 김씨는 단식 후유증이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목소리에도 여전히 슬픔이 묻어났다.

김씨는 시민상주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한 광주시민을 향해 고개 숙여 감

사인사를 전했다. 유족들이 사고 후 200일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함께 울어준 광주시민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충격적인 사고와 그 이후 벌어진 반응에 누그러진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났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법원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된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살인혐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없었음에도 이번 판결로 또 다시 상처받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 요구를 일부 반영한 채 통과됐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관심이란 이름으로 사회문제에 눈 뜨지 않았던 자신 때문에 딸이



희생됐으며 뒤늦게 눈을 뜬 자신을 질책했다. 시민을 향해서는 하늘의 별이 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무관심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만약 참사가 터지더라도 그때는 모두 구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 조성경 남부대 교수 피아노학회 초청 연주회

남부대학교 음악학과 조성경 교수가 최근 서울 이원아트홀에서 열린 2014 한국 피아노학회 초청·호남·제주지부 초청 연주회에서 ‘Bowen Suite Op.52’를 연주했다.



한국피아노학회가 주최하고 이원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초청연주회에서 조성경 교수는 보웬 모음곡 작품 52 I. Prelude(서곡)와 II. Dance를 연주했다.

조성경 교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기악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U.B.C에서 수학한 후, 남부대에 음악학과를 개설하고 초대 학과장을 지내는 등 대학과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과 음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광주지방국세청 노대만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정광주(금초서예문화원장)·서교순씨 장남 차웅근 김창근·왕혜영씨 장녀 지현양=15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지구 S타워컨벤션 3층 클리스타홀.

▲김정명·민정씨 차남 대웅(주)용산)군 이종하·장지선씨 장녀 은숙양=15일(토) 오후 1시 상무리컨벤션웨딩홀1층 아이비홀 010-9145-9579.

###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

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비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6~11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모집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은 담당겨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은 품고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은 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원은 페라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은 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뷰엔터 살사동호회원은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상춘동 원불교승곡 062-232-7223~4.

### 부음

▲정순길씨 별세 민석(에이스테크놀로지)·민권씨 부친상=발인 13일(목) 조선

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박복순씨 별세 유성호·영호·재호·수호·영자씨 모친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봉자씨 별세 이상진·창기·상철·다감·성숙·경숙(조선대)씨 모친상=발인

13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최경순씨 별세 조영원·영대·영삼·혜숙·해란씨 모친상=발인 14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p><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b></p>	
<p><b>101호 故양근업 남(여/75세)</b>          子/子婦 : 윤영우/민현자, 윤영식/최현숙          女/婿 : 윤민자/박광현, 윤안자/이동현          *발 인 : 11월 1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p>	<p><b>102호 故선동숙 남(여/87세)</b>          子/子婦 : 장순호/장영숙, 장순명/조영란          女/婿 : 장민정/사 중 * * : 장철민/장종현/장종철          *발 인 : 11월 1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p>
<p><b>201호 故정돈근 남(남/85세)</b>          子/子婦 : 정은성/이영심, 정문성/안규숙, 정명삼/유은영          女/婿 : 정명희/양원호, 정숙희/박부원, 정문희/박전희          未亡人 : 김복순          *발 인 : 11월 14일          *장 지 : 화순면암림동산 *연락처 : 227-4381</p>	<p><b>402호 故백현정 남(여/46세)</b>          子 : 임 호, 임 준          女 : 임 희          夫 : 임호준          *발 인 : 11월 1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14</p>
<p><b>401호 故황의경 남(남/87세)</b>          子/子婦 : 황은실/김미경          女/婿 : 황윤실/박조권, 황영민, 황윤정/최종림, 황원경/장동욱 황정희/박 중, 황두희/유재용, 황승희/이현진          *발 인 : 11월 1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p>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문 의 (062)227-4000